

전북 숨은 표 찾기 나섰다

민주 선대 자치분권특보단, 전북 특보단 발대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특보단이 10일 전북도당에서 '전북 지역 자치분권 특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특보단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압도적 지지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전북 곳곳에 있는 지역 리더들을 특보단으로 임명해,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 정책을 널리 퍼

트리고 숨어있는 표를 찾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자치분권특보단 전북 발대식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부위원장, 제종길 자치분권특보단장 그리고 전북 지역의 리더들이자 자치분권의 핵심인 특보단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명장 수여 및 자치분권특보단 소개, 그리고 자치분

권특보단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준병 부위원장은 "전북은 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며 "특보단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기둥이 돼 선거 승리를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임명된 전북 자치분권 특보단은 향후 전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선을 위한 자치분권 캠페인, 지역 조직화 활동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에 전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시군의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현안 논의

전주시·군의회 의정협의회가 10일 진안군의회와 남원시의회를 찾아 각종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동화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과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현안 협의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차원에서 마련해 대응하는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간담회 후 그동안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광수의 의장과 양희재 의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당 도당 선대위, 군산지역 필승결의대회 개최

전북도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옥산 힐빌센터에서 전북도당 군산지역 신영대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진환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방역수칙을 준수해 열었다.

전북도당 군산지역(위원장 신영대)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임명됐다.

군산지역 대진환 선대위에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 선대위', ▲모든 국민에게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 ▲국가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선대위'라는 중앙당 선대위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선대위원장(부위원장)과 대변인, 정책특보, SNS특보 등의 인사가 대거 선대위에 참여한다.

군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윤기원(광성교회목사), 김효신(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고영아(군산



여고) 등 세 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고영아(19)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군산여고 3학년 재학생으로 숙명여대 법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다.

고영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름만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 전달하고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영대 군산지역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뿌리인 군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고, 범입을 조성하기 위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당원들과 함께 승리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위원회는 10일 대진환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진환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는 안호영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최라도 명예선대위원장, 최충일 명예 선대위원장, 여태권 명예선대위원장 등 30명이 완주사무실에서, 조영두 다문화 위원장 등 200명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원장 안호영)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임명됐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위원회 대진환 선대위에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 선대위', ▲모든 국민에게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 ▲국가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선대위'라는 중앙당 선대위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선대위원장과 대변인, 정책특보, SNS특보 등의 인사가 대거 선대위에 참여한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황민성 대학생 방은경 여성78인, 김승찬 청년대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각한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고, 범입을 조성하기 위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당원들과 함께 승리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필승 결의대회에 공명장대한 활동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원회와 전북 곳곳에서 앞장서 뛰기로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황호진 전 부교육감 "권역별 청소년종합스포츠타운 건립할 것"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전북 체육회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주제로 교육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정장선 회장과 신준섭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학교체육 활동은 사회성 발달 리더십 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 평생 즐기는 스포츠 활동은 신체 건강은 물론 중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주·군산·익산시 및 권역별 청소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권역별 체육 중점학교 설치 ▲전북체육회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장단·운영 지원 ▲학교 스포츠 전문

지도자 강사 파견 확대 ▲매일 체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1.4%인데 비해,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인 7%에 불과하다"며, 정기적 체육활동 확대와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적절한 체육활동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운동능력 평가에서 성과가 높은 학생이 더 좋은 직업 기억과 더 짧은 반응 시간을 보인다는 OECD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장선 회장과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 인재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정문성 기자



유창희 전 부의장, 전주-완주 특별자치단체 로드맵 제안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10일 자신이 앞서 공약한 '전주완주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완주 특별자치법 제정을 위한 전주완주 특별자치법 제정에 따른 로드맵과 주요 사업들을 제안했다.

유 부의장은 100만 경제특별시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수소산업 중심도시 ▲농생명 4차산업 선도도시 ▲메타버스·디지털 관광 도시의 메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수소 산업 육성의 경우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 주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전주와 완주가 함께 협력 조성하며 도내 대학에 수소에너지 학과 및 전문대학원 설립, 수소산업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농생명 4차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수산대학이 입주한 혁신도시 중심의 국제 농생명 지능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수산대학 II관 연학과 유치 및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스마트 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농식품 소재 고기능성 메타바이오 메디푸드 산업의 허브 조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 부의장은 1억 명 디지털 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를 완주까지 포함하고 메타버스 관광문화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시대를 맞아 일과 휴식, 관광을 묶는 체류형 워케이션(wacation)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자녀들이 전북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위해"

김윤덕 의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오일장 투어' 일환 익산시장 찾아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인 김윤덕(전주갑)국회의원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전북 오일장 투어' 일정으로 익산시장을 찾았다.

이번 투어는 진안시장을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익산시장 상인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알리고, 이재명 후보와 상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물건을 파시는 시장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눴다.

시장 어머니들은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며, 김윤덕 의원을 격려하는 등 코로나의 힘든 현실에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김 의원은 특히,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 의원 어머니가 부안시장에서 상인으로 평생을 사신 분에게 그도 자연스레 시장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장 상인을 만날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어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전북 오일장 투어' 일정으로 익산시장을 찾았다.

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 상인들은 "익산은 1980년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공단의 생방울 메리야스 공장이 정말 잘 돌아갔다"며 "당시 공장 월급날인 10일만 되면 시장이 바글바글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시장이 코로나로 예전과 같은 활력을 잃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곳곳이 자리를 지

키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우리 어머니들의 아들, 딸, 손자가 서울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서 취직해 전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재명과 김윤덕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군수 될 것"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순창군수 출마 공식화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순창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조합장은 10일 오전 11시 순창군 장미예식장에서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조합장은 정부가 선정한 소멸 위기 지자체 89곳 중 한 곳에 순창군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인구감소 및 도농 소득격차를 해결할 책임직임을 역설했다.



특히 최 전 조합장은 "스스로가 제일즈맨(영업사원) 군수가 되어 순창을

팔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서울로, 중앙으로, 국회로 뛰며 6000억 정부보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광·농산물 판매도 성공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농업, 노인 의료, 출산, 귀농귀촌, 다문화 등 순창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케어 시스템)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전 조합장은 "만년 적자의 순정축협을 전국 제일의 복지조합으로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순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겠다"며 "최기환은 순창군의 영업사원이자 실무꾼이자 일꾼이 되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실천할 때"

윤준병 의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후보지 정읍 선정 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강소형(지역규모는 작으나 잠재력 높은 관광지 연계 스마트관광 서비스) 유형 1차 예비 후보지 4개 도시 중 한 곳으로 정읍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이 가능한 내장산 문화관광 관광객에게 과학기

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아웃도어형 경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생태관광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그간 윤준병 의원은 해당 사업 공모 이전부터 정읍시와 유관기관 관계들과 서울·정읍에서 수시로 만나 회의를 진행 스마트관광도시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사전에 미리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때가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경쟁단계에서도 세부계획수립 등을 꼼꼼히 챙겨가며, 정읍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원택 의원, 농식품 바우처 김제 2연속 선정 환영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 등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김제시가 2연속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0일 농식품부가 저소득층의 식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김제시 2연속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량은 절대적 부족 상태로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확대를 통해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식음바우처 예산반영을 위해 충남기경제부총리에게 저소득층의 식생활과 삶의 질 개선,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예산 반영을 최종 이끌어낸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량은 절대적 부족 상태로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확대를 통해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구독 · 광고문의 288-9700